

하천은 아름답다

최서연

아빠의 하얀 차를 타고
친할머니댁에 놀러갑니다.
매미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매앰-맴 울어댁니다.

서울에서 양수리까지
졸랑졸랑 따라온 양말 두 짝을 벗고,
바지도 걷고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송사리들이 보입니다.
용기종기, 오순도순 모여있는
다슬기들도 보입니다.

흐르는 물을 비추는 햇빛과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어우러져
더욱 행복한 하천을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소중한 생명들의
아스라이 펼쳐져 있는
빛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